자기 마음 다스리는 능력 길러야

☞ 17면에서 계속

답 그런데 그렇게 걱정을 하는 마음도 진짜 자기를 못 믿기 때문이에요. 이 몸뚱이는 보이는 물질의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기 모습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진짜로 믿는다면 뭐든 잘못되는 게 보이면 한데 모아서 똘똘 공 하나로 뭉쳐서 '당신만이 할 수 있어.' 그러고는 그냥 딱 맡기면 편안한 것을, 편안하게 발걸음이 떼어 놔질 수 있는데 왜 못 믿습니까?

자기를 자기가 못 믿는다면 자기 일들은 누가 합니까? 제삼자가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가서 내가 반드시 사야 될 물건을 집었더라도 그 대가를 치르고야 그 물건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급하면 '모자라는 그릇을 채워라' 하고 부처님 전에 정성을 들여 주기도 하고 자꾸 관해 주고, 안으로나 바깥으로나 그렇게 해 주신다면 오죽이나 잘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러 절에다가 이름만 올려놓고, 부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고는 자기는 나 몰라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래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은 그게 아닙니다. 상대를 보고 해 달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형상과 내 형상이 둘이 아니요,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요, 그 뜻도 또한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내 몸과 둘이 아니고,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과 둘이 아니라면 해 달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네 마음을 먼저 알아야 내 마음을 알 수 있느니라. 그럼으로써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둘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네 마음이 전깃줄이라면, 내 마음이 또 전깃줄이라면 한데 합치면 불이 들어올 뿐이지 거기서 해 달라 안 해 달라 이런 게 붙지 않느니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네 마음을 네가 발견하고 깨달아서 자유스럽게 살라. 일체가 다 공해서 돌아가느니라. 그리고 일체가 너 아님이 없느니라. 일체가 높고 낮음이 없느니라. 그런데 누구한테다 해 달라고 하겠느냐. 네 마음 가운데 도량이 있고, 부처가 있고 법이 있고 그런데 어디에다 해 달라고 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을 위해 정성 들이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애고가 있고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그러는데 기도만 드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 자성이 다 있습니다. 자성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만이 물질계 50%인 이 세상에 정신계 50%를 알아야 물질계로 나오게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다거나 학교에 가려고 생각을 했을 때, 벌써 나는 시험을 봐야 하고 또는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필요한 설계도가 나와야 합니다. 설계도만 나오면 집이 올라갑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마음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어디서 해 달라고 자꾸 그러는 것도 마음 내는 거지만 그거는 물 한 모금 쪽박에 얻어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복을 비는 건데, 복을 좀 얻어 쓸 수야 있겠지만 본래의 것을 타개하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명석해질 수도 없고, 물리가 터질 수도 없고, 항상 얻어먹는 노예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부모가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보는 자식들한테도 관하는 법을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갖자 자기만이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켤 수 있는 거니까요. 자기가 하는 거지 누가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대신 누가 봐 주는 겁니까? 어떤 다른 신이 있어서 내 시험을 보게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자기를 이끌어 나가는 거니까 어리석게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오죽 잘 해 주랴 하고 해달라고 의존하지 말고 한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내가 적든 많든 정성을 들일 때 모두 한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큰스님이나 작은 스님이나 또는 자기나 자기 자식들이나 일체제불의 마음이나 한데 합친 주인공이라 그랬어요. '주인공, 너만이 꼭 이룰 수가 있고, 침착하게 시험 보게 할 수 있는 건 너 밖에 없어.' 하고 아주 지극하게 하세요. 자기 일이니깐 자기가 얼마나 침착하게 잘 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렇게 정성스러울 수가 없이 하게 되겠죠. 그게 자기 일이니까 침착하게 하려고 하지 벌써 한 다리 건너가면 침착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깐 본인들이 하란 얘기입니다. 자식들은 물론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반드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관하는 도리를 일러주시고요. 미리미리 익혀둬야 꼭 필요할 때 활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만 하지말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관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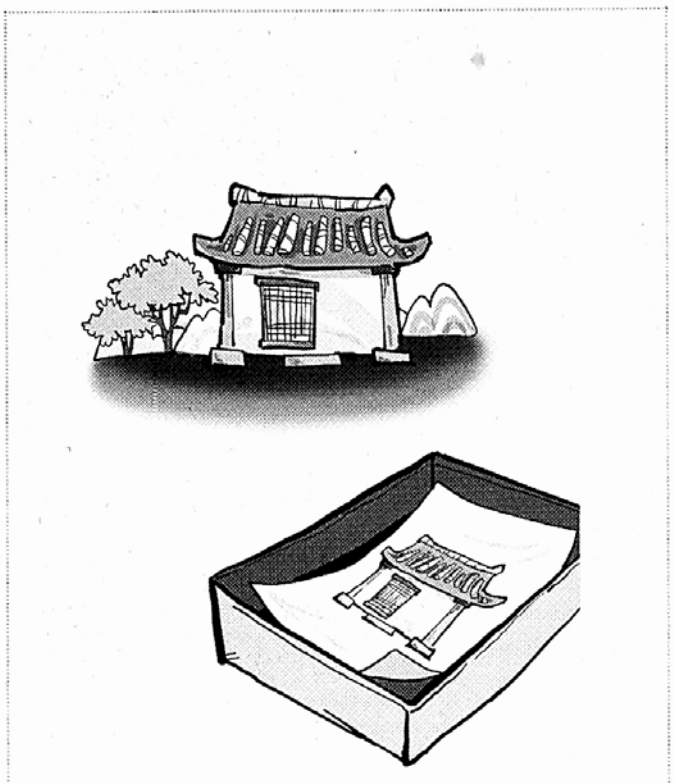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 마음속에서 도량 · 부처 · 법이…

꿈과 현실이 다른 이유

문 주인공을 관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스님께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는 자면서도 주인공을 관하는 공부를 하는데, 처음엔 꿈으로 생각했었지만 꿈과는 다른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꿈에서도 현실처럼 주인공을 찾고 공부하는 것이 현재의식의 반영이라면 깨어 있을 때와 잠이 들었을 때 저의 의식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 우리가 죽을 때에 모든 것을 거기다가 일임하고 숨이 꼴딱 넘어가게 되는 것처럼 진짜로 다 놓을 수 있다면 과거가 현실로 찰나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해서 드러누워 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밥을 떠 먹이고 했어요. 근데 부모들이 죽은 다음엔 이 생명이 어떻게 살아나가나 하구선 절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하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해 줬으면 속이 시원하겠소?" 하니깐 지금 빨리 가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한테도 이득이고 우리 식구들도 살겠다는 거죠.

> 진짜로 믿는다면
> 진짜로 믿어서
> 내가 없다면,
> 전부 내가 없다면
> 깨끗한 물로 변해

근데 그것이 현실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한테 문서가 지어진 거를 저승가야 없앨 수 있는데, 그런데 저승도 한 발짝이요, 극락도 한 발자국이지만 모르는 사람은 천리만리 아예 까마득한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공부 해서 가는 길을 아는 사람들은 한 발자국이고, 온 사이도 없고 간 사이도 없이 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꼭 거기를 갔다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쪽지 하나를 얻어서 그거를 없애야만이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을 할 텐데 누가 저승엘 갑니까? 천상 심부름하는 내가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깐 나도 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게 많다 이겁니다. 내가 있는 게 없이 있기 때문에 화하려면 무지하게 화하고, 없어지려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쪽지를, 둘이 아닌 까닭에 쪽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쪽지를 받아서 없애 버리니까 그때 애가 갔습니다. 뼈도 없이 누워서 살았는데 가서 다시 재생을 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랬듯이 그 모든 과거에 있던 일이 현재의 문제로 돌아와야만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과거 일이 돌아와도, 앞에 닥쳐와도 그걸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로 믿었어야 되는 거죠. 진짜로 믿었어야 꿈도 화하지만 모습도 화해지고 둘 아니게 없어질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안되는 일을 가지고 오실 때에 답답한 이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에 그거를 시작할 때에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거죽만 보고 했기 때문에, 말만 듣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거론이 되죠. 결국은 얼마 안 가면 거론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일은 지극하게 관해서 그거를 없애야 될 텐데 정말 진짜로 믿는다면 진짜로 믿어서 내가 없다면, 개개인이 전부 내가 없다면 다 말갛게 깨끗한 물로 변하듯이 그렇게 변하는 거죠.

이런 저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꿈도 생시요, 생시도 꿈이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면서도 그냥 허탕지탕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면서도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와 자고 있을 때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시에 일체를 나의 근본과 둘 아니게 보아야 꿈 속에서도 둘 아니게 보게 되고, 앉아서 천리만리를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뭠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분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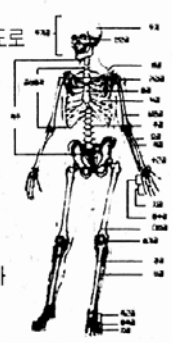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 악간의 활동이나 게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빌도로 상담바립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 骨仁製藥(株)

코스모피아
빛의 수련
Soul of Light
인류의 영적인 진화 · 발전 그리고 깨달음!
김지호 지음 / 신국판 / 9,000원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수련서

무수한 차원과 시공간으로 이루어진 광대한 우주를, 이제 우리는 단순한 꿈과 이상이 아닌 더 구체적인 정보적 차원에서 우주 존재의 실상에 다가간다.

정보의 바다, 정보의 구성체인 우주는 불가에서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 표현하고 있듯이 고정불변의 정지된 상이 없이 순간순간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우주의 변화는 무질서한 혼돈의 상태가 아니라 축기를 지양하고 사랑과 자비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는다 보다 더 완전해지려는 고차원적인 우주적 질서를 따라 무한한 진화와 발전을 한다.

소우주라 일컬어지는 인간도 이러한 고차원적인 우주적 질서와 하나되어 진화 · 발전하려는, 보다 더 나은 존재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상향적 의지를 갖는다. 이를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는 자아탐구 및 우주의 존재의 법칙 등을 궁구하게 되었다.

이 책은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수행하고, 우주의 실체를 알고 자신의 신성을 찾아 깨달음에 이르도록 체계적으로 정리 · 설명하였다.

삼각형 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 장교빌딩 2608호 ☎ 755-9314~5 (영업부) 318-4011 (출판기획부)

정통 비법 공개 수강생 모집
초 보 자 환 영

1. 명리, 육임, 명리학(사주학)
일반적으로 많은 역학인들이 활용연구하는 학문으로 한개인의 특성과 운명 및 과거, 현재, 미래 등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학문으로 옛부터 많은 호평을 받아온 모든 역학의 기본부분에 해당되므로 더차원 높은 기문, 육임 등을 연구하려면 명리학 부터 시작해야 정석일 것이다.

2. 육임학(대육임) 명리 중급 이상
역학중에서 가장영험하고 적중률이 우수한 학문으로 문복자 생년,월,일, 시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사람의 모든것을 알수있는 학문이므로 영험하기로 정평이 있고 그러나 워낙, 복잡하고 난해한 학문이므로 웬만한 결심과 노력으로 덤벼들었다가 포기하는것이 부지기수여 하도 기묘해 인간이 도저히 고안낼수없는 신이 내려준 신의 학문이라고 한다.
육임을 정통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봉였던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수박겉할식으로 공부하여 앵무새로 전략한다면 진정한 육임이라고 볼 수 없다. 어떤 학문이든지 정통하여 경지에 도달할때에 진정한 가치를 맛볼것이다. 육임학에 뜻을둔 분께 육임의 본질과 진수를 과감하게 드려내어 정통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제시!
최소의 시간과 경비로 일대약신 기회 드리고 있는 중 이오니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참된실력자 배출을 지향하는 豫知院
02)393-0992 / 018-275-0992
E-mail : sangsang333@hanet.net

우스이 레이키(Reiki 靈氣)가 왜 화제인가!
– 3일만 배우면 됩니다 –
– 탁월한 우주 생명에너지 이용법입니다 –
– 건강 전체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생명에너지입니다 –

일본의 정토진종의 구도자 우스이 미카오씨(1865~1926년)가 교오토의 산속에서 21일간의 처절한 단식명상 끝에 번개를 치듯이 올려 오는 우주생명에너지와 감응하고 그 이용법을 체계세워 레이키라고 이름지은이래 이미 레이키는 전세계 50개국 이상에 보급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부터 미국을 통해 전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을 거치다 보니 본래의 내용이 빠지고 에너지의 질에 차이가 생긴 갈래들도 도처에서 생겨 났습니다.
저(박희준)는 많은 갈래의 레이키를 고루고루 외국에서 배웠지만 특히 일본에서 소수의 인물에게만 전해지는 우스이씨 본래의 어튠먼트(능력전수절차) 기법과 에너지를 전수받고 더욱 개량한 끝에 3일이라는 최단기간에 우스이 레이키 제3단계 까지를 전수하는 일을 1998년 부터 우리나라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3일 교육제도는 일본, 미국의 어떤 레이키 교육기관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 우스이 레이키(교육기간 3단계까지 3일, 교육비 70만원)
교육내용 : 우스이 레이키 발영법, 12치료점 지료법.
급만성질환에 대한 원격치료법, 동식물 지료법.
악물 음식물등에 대한 에너지주입법. 생활의 여러방면에 걸쳐서 레이키를 활용하는 법. 박희준식 레이키 특별참나(본성 자성 불성) 활성화법 등.
▶ 3일간의 교육이 끝난 1개월후에는 1일간의 무료 추가 교육이 실시됩니다. 완전레이키요법, 차크라활성 호흡법, 간단한 제령법등을 이때 배웁니다.
2. 카루나 레이키(교육기간 2일 교육비 5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우스이 레이키를 배운분이 다음 단계로서 배우는 새로운 레이키입니다. 9종류의 氣를 요법에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이 끝난 1개월 후에는 카루나 레이키 제령법 등를 배웁니다.
※ 현대불교신문 독자는 우스이 레이키, 카루나 레이키 10%씩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우스이 레이키, 카루나 레이키 일괄등록 103만원

현대 생활 레이키연구회
대표 박희준 [그랜드 마스터]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 전화 : 02)720-5682, 720-5719, 팩스 : 02)720-5720
◇ 핸드폰 : 019-392-2557, 018-850-1680